

[전체공지]

※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대양의 보호)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잭슨빌]

- 신부님께서 오늘 미사후 성령대회 참석하는 관계로 이번주 평일미사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금요일인 9 월 6 일 저녁 8 시에는 미사와 성체강복 시간이 있겠습니다.
 - 성령대회에 본당에서는 총 8 명이 참석합니다: 이문자 모니카, 이교순 카타리나, 최영선 마리아, 이미애 글라라, 김상신 디나, 최명희 크리스티나, 김정임 레지나, 윤미임 데레사.
- 성령대회는 9 월 1 일 주일 오후 1:00 시작, 9 월 2 일 월요일 오후 5:00 마칩니다. 성령대회에 참석하는 신부님과 참석자들이 무사히 오고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게인즈빌]

- 내일 아틀란타 성령대회에 참석하는 신부님과 참석자들이 안전하게 오고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주 주일미사(9/7)는 추석(9/13 금)을 맞이하는 추석미사로 진행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161	\$120	-	-	\$281
잭슨빌	\$269	\$300	-	-	\$569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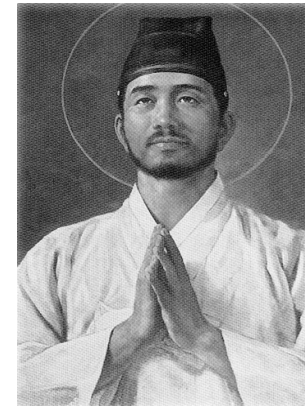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한번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성체 조배를 마치고 나오며 비서 신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고 합니다. 비서 신부는 이에 감동을 받아 더 열심히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집회서의 저자는 “애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겸손한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으려면 모든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열 번 잘하더라도 한 번 화를 내면 그동안의 수고가 쓸모없게 됩니다. 지위가 높으면서도 겸손하면 더 존경을 받습니다. 추기경이 비서 신부의 신발을 정리해 주었다고 하면 듣는 이도 추기경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기에 온유하고 겸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제 1 독서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끝자리에 앉으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이들은 언젠가는 보답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선물을 준 나는 저절로 받들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22 주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 1 독서] 집회서 3,17-18.20.28-29

<너를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화답송] 시편 68(67).4 와 5 ㄱ.6-7 ㄱ.10-11(㉞11 ㄴ.ㄷ)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제 2 독서] 히브리서 12,18-19.22-24 ㄱ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알렐루야.

[복음] 루카 14,1.7-14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8/31)	임윤미 플로라	천창준 레오	천하일 미카엘	-
	잭슨빌 (9/1)	서정원 헬레나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켄마 렉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9/7)	이호석 레오폴드	이명순 로사	이영순 프란체스카	-
	잭슨빌 (9/8)	이교순 카타리나	최명희 크리스티나	이재민 토마스	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318	1	551	547
잭슨빌	402	501	174	6